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5•6 월호

1986 년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충현교회

☺ 노동의 유익 ☺

사람이란 세상에서 10년을 살든지 80년을 살든지 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에덴동산에서도 일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서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도록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창2:15) 이렇게 사람이 일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귀한 것이다.

사람이 노동을 하므로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첫째로, 노동은 육체를 강건하게 한다.

서울의 부잣집에서 매일 고량진미를 먹고 보약을 장복하지만 몸이 약하여 10근도 들지 못 하고 비틀거리는 사람이 많은 것은 노동을 하므로 단련시키지 않고 돼지처럼 키우기만 한 까닭이다.

그와는 반대로 시골에 가면 먹는 것은 별 것이 아니지만 양팔이 철봉같고 양다리가 돌기둥같아서 태산이라도 능히 들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것은 매일 노동을 하는 중에 강건함을 얻은 까닭이다.

사람의 육체와 정신은 사용하는대로 발달하는 것이다. 기계를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슬어 파손되는 것과 같이 몸도 노동으로 단련시키지 않으면 사지는 성할지라도 온갖 병이 발생하여 마침내 쓰러지고 마는 것이다.

둘째로, 노동은 범죄방지에 제일 좋은 방법이다.

게으른 자의 뇌는 악마의 공장이라는 말과 같이 모든 죄는 게으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사람은 어떤 사업에 목표를 정하고 부지런히 일하는 동안에는 겉에서 하는 말이 들리지 않고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게으르므로 마음이 흩어지는 때에는 공상과 망상이 생기며 허욕과 사심을 통하여 범죄의 길로 미끄러지게 되는 것이다.

셋째로, 노동은 먹는 문제를 해결한다.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창 3:19) 이것은 인간의 생활원칙이 노동에 있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사람이 비록 노동을 하고 싶지는 않으나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창조하신 까닭이다. 『노력하는 자는 식욕을 인하여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잠 16:26).

만일 사람의 입이 독촉하지 않으면 일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노동은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는 것으로 신성한 것이다.

일하지 않고 놀고자 하는 것은 죄악이다.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으리라』하셨는데 땀을 흘리지 않고 그저 먹으려는 자는 불한당이요, 놀고 먹으려는 백성은 강도와 같다.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빈궁이 따른다. 바울 사도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살후 3:10)하였는데 오늘날 소위 수도를 하고 생식을 한다면서 산중에 들어가 일하지 않고 었드려 있는 것은 한심한 인생이라고 하겠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결과로 가난해졌는데도 공연히 하늘을 원망하고 사회의 안녕질서를 요란케 한다면 어찌 통탄하지 않겠는가? 모름지기 모든 인간은 노동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착실히 해야 할 것이다.

五大目標

天國일꾼養成
北韓宣教
民族福音化
世界宣教
聖殿建築

월간 충현

1972년 4월 30일 창간
제14권 제3호
통권 제134호

충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전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5·6 월호

차 례

권두언 / 노동의 유익.....	주 간... 2
이달의 말씀 / 빛을 발하는 기회.....	김창인... 4

특집 I 가정의 달

- 성경적 자녀교육..... 이진숙... 6
- 현대가정에서의 고부갈등..... 이경애... 8

특집 II 6·25

- 6·25회상..... 조현명... 11
- 평신도를 위한 신학강좌 / 사도신경총론Ⅲ..... 임종만... 13
- 교육논단 / 바울의 교회교육관(2)..... 조영길... 15
- 충현칼럼 / 그리스도인의 역사의식..... 김차생... 18

독자투고

- 신앙간증 / 봉사와 주님의 축복..... 최순철... 19
- 신앙간증 /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김덕희... 20
- 수필 / 자녀에게 경건의 모범을
보이자..... 한형식... 22
- 단상 / 죄 없는 자가 돌로..... 정관석... 23
- 단상 / 결과에 숫자에 집착하는 삶..... 김성욱... 23
- 신앙상담 / 성수주일에 관하여..... 이세열... 24
- 추천도서 / 절기 설교집..... 편집실... 25
- 선교지 소식..... 세계선교회... 26
- 교회소식..... 편집실... 29
- 교우동정..... 편집실... 32
- 5·6월의 행사·편집후기..... 편집실... 34



□ 표지 사진 설명 □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듯 십자가 설치 작업중 교회 위에 나타난 약속의 무지개를 카메라에 담아 보았다.

우독선 두 개의 십자가가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진 축복의 약속처럼 이 사회와 시대와 역사를 향한 빛으로, 구원으로 영원하기를 바라면서.

빛을 발하는 기회

마태복음 5 장 14절

이 글은 지난 2월 22일 장충체육관에서 있었던 '86아시아경기 시민봉사자 대회에서 전하신 말씀을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주)

김 창 인
(목사 · 당회장)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마5 : 14)

우리 나라에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선한 일에는 네 가지 종류의 일꾼이 있기 마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좋은 일꾼이 있고, 말만 하는 구경꾼이 있고, 일을 망치는 방해꾼이 있고, 또 일은 한다고는 하지만 사람이 보는 데서 간신히 우물쭈м 하는 값꾼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댓가를 바라는 값꾼도 아니고, 일을 구경하는 구경꾼도 아니고, 일을 망치는 방해꾼도 아니고,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경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데 대하여 지금도 온 세계가 의아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에 각종 우상종교와 불교, 유교, 회교, 힌두교가 난무하고 있는 아시아를 한국 교회를 통하여 살리시려는 섭리가 계신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두 국제경기를 훌륭하게 치르고 난 다음에는 세계가 한국을 우러러 볼 것으로 믿습니다.

1964년 일본에서 올림픽을 개최할 때에 그들의 개인소득이 2천 불 정도로 지금의 우리나라와

비슷하였습니다. 그들이 올림픽을 하면서 '흑자 운영이 되겠느냐, 적자 운영이 되겠느냐'라는 문제를 놓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땀과 눈물을 쏟으면서 친절하고 겸손하게 일을 잘 치루었으나 결국 빛은 잔뜩 짙어진 채 대회가 폐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 2년, 3년이 지나는데 동안에 온 세계에 '일본 사람들은 친절하고, 착실하고, 정직하더라. 일본 사람이 만든 물건은 아름답고 쓰기에 편리하더라'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리하여 3년이 지나기 전에 적자는 메워졌고 오늘날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저는 이번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에 우리나라가 얼마의 경비를 쓸지는 모르겠으나, 대략 직접 쓰게 될 돈은 8억 불 정도가 될 것 같고, 간접적으로 쓸 돈은 20억에서 30억 불 정도가 쓰여질 것이라고 생각해 볼 때에 이번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흑자로 운영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자 운영이 되어도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1964년에 크게 적자를 보았어도 5년 사이에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번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잘 치르고 난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손님에게 친절하더라. 한국 사람들은 용모도 깨끗하고 말과 행동이 진솔하더라. 한국의 물건은 값이 싸면서 예쁘고 쓰기에 편리하도록 잘 만들었더라. 한국 사람은 신용이 있더라' 이런 말이 나오게 된다면 비록 적자 운영이

되어도 그 빛을 모두 메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나라의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야 보든지 안 보든지 모두 자신의 책임에 충성만 하면 절대로 적자 운영이 되지 않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좋은 씨앗을 정성껏 심은 다음에 눈물을 쏟아 거름을 주고 땀을 쏟아 가꾸면 승리의 자유와 성공의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어 자손들에게 유업으로 물려 주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왔는데 게을러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 하면 그것이야말로 구경군보다도 손해를 더 많이 끼치는 무서운 방해군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튼튼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건실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모든 활동이 자유롭게 옮겨지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귀한 것은 땀을 흘리는 노력, 눈물을 흘리는 희생의 정성이 꼭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저는 어느 부대를 방문하여 많은 장병들을 앞에 놓고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별 돌을 다신 사단장님도 나와 앉으셨고 많은 군인들이 함께 앉은 자리에서

“사단장님 나와 약속합니다. 그리고 꼭 실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많은 군인들을 훈련시킬 때에 등골에서 땀이 시냇물처럼 흐르고 힘줄이 늘어나도록 시켜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단장님이

“예, 예”

그러나 모든 장병들은

‘저게 사람을 죽이네’

하는 표정입니다. 그리고는 모두 머리를 푹 숙이는데

‘네 말은 안 들어’

하는 항거입니다. 저는 그때에 장병들을 향하여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여 나에게 아들이 셋이 있는데 셋 다 군대에 보냈습니다. 우리의 국군이 편안한 때에 땀을 쏟으면서 훈련을 받으면 혼자서 100명을 당해 내는 용사가 됩니다. 평소에는 땀을 흘려 뼈가 아프도록 훈련을 받으면 원수들이 감히 우리에게 결눈질을 못 하고 뿔뿔 떨 것



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피흘리지 않고 땀만 흘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훈련을 받기가 힘들다고 사단장님의 눈을 피하여 우물쭈м 넘어가면 여러분은 오합지졸로서 몸에는 군복을 걸쳤으나 실력있는 군인은 못 되고 원수들이 여러분을 업신여길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침략을 감행할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여러분이 땀과 피와 힘을 모두 쏟고 죽어야 하고 후방에 있는 우리도 도망가다가 피를 쏟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땀을 흘려 준비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모든 나라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86년의 아시안게임과 '88년의 올림픽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번 9월에 우리나라를 찾는 사람의 수가 아마도 17만 명 이상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가운데는 공산국가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별별 사람들이 다 오게 될 것인데 그들이 한국에 왔을 때에 한국 사람들이 사랑에 넘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적, 땀 흘리는 봉사,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나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 공산주의자들은 슬금슬금 도망칠 것이고, 모든 중립국들은 손을 들고 한국을 향하여 찾아올 것이고, 더구나 이 기회에 '86아시아복음화대성회와 '88세계복음화대성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타고르가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세계를 향하여 빛을 발하는 동방의 등불이 될 것을 믿습니다. *

성경적 자녀교육



이 건 숙
(동덕여대 교수)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들은 이야기들은 아이에게 우주요, 진리였다. 그러나 그 무릎을 떠나 문밖에 나서면 모든 아이들은 현기증이 나서 어지러워하기 마련이다. 특히 기독교 가정에서 성경을 인생의 헌법으로 배우고 큰 아이들에게 세상법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혼돈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부모의 생활을 따라 살자니 바보 취급을 받고 친구들과 떨어져 살자니 외로워 크나큰 갈등을 겪게 된다.

아이들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바로 동질화의 압력이다. 이 동질화의 압력을 숨기는 아이보다 터놓고 고통을 호소하는 편이 부모된 입장에선 훨씬 마음이 놓인다. MT를 다녀온 작은 아들이 얼굴을 이그러뜨리며 괴로웠던 사건을 털어왔다

「선생님이 소주를 먹으라고 했어요.」

「그건 왜?」

「술 먹는 법을 가르치겠다나요.」

다급해진 나는 놀란 나머지 아들의 입술만 멍청히 바라볼 뿐이었다.

「넌, 설마………」

「저만 마시지 않았지요.」

「잘 했다.」

나는 그간 심어준 내 나름의 교육이 성공했음을 은근히 기뻐하며 쾌재를 불렀다.

「엄만 그 때 선생님이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여자래요, 바보구.」

동질화의 압력에서 소외감을 느낄 아이를 달랠 겸 나는 성경을 가지고 대꾸를 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다. 믿는 자에게 당연히 따르는 핏박이 아니라. 이 세대를 너는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지……

아들은 나의 긴 연설에 침묵했다. 처음 다가온 집단압력에 이번엔 승리했지만 다음번엔 자신이 없다는 침묵일까. 애미로선 불안한 마음뿐이고 하나님의 문화 속에 살다가 사람의 문화 속으로 꼭 나가야하는 그의 환경이 아무래도 물가에 선 아이를 보는듯 조마조마했다.

어른이 되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할 깊은 계곡인 사춘기의 괴로움이 그들에게 있다. 이 계곡은 신체의 변화를 겪어야하는 계곡이요, 사랑과 감정을 잘 조정해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하는 깊은 시련기이기도 하다. 외모 때문에 주눅이 들거나 열등의식에 빠져 허덕이는 아이들이 통계를 낸 결과 80%에 달한다니 이들의 고통을 짐작할만 하다. 똥똥해서 부끄럽고, 머리가 나빠 속상하고 돈이 없는 집안에 태어난 것이 우울하며 눈이 작은 것이 한심스런 그런 나이이다. 이런 류의 고민을 아이들은 부모에게 솔직히 털어놓기를 꺼려한다.

중학교에 다니는 딸의 일기장을 읽고 너무 놀라서 수전증에 걸린듯 한참을 떨었다는 어머니도 있다. 그 딸의 고민은 코가 납작해서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결코 연애를 할 수 없으리란 비판의 독백이었다나. 개성있는 납다디한 딸의 코를 귀엽고 애교있다고 본 엄마에게 딸의 고민

인 충격일 수밖에.

자녀들의 반응을 썩 무시하고 부지런히 가정 제단을 쌓으며, 매일 이 한번의 기도 모임으로 자녀교육을 완성했다고 믿는 어머니들이 많이 있다.

내가 아는 어느 여의사는 365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30분씩 붙잡아놓고 가정예배를 본 아버지 걸을 떠나는 것이 소원이었고, 진짜로 의사가 된 뒤엔 교회까지 떠나는 것을 목격했다.

어른이 되기 위해 건너야 할 험한 계곡을 놓고 고민하는 자녀들에게 형식적인 교육, 형식적인 가정예배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더 단절을 가져올 뿐이다.

신명기 6장에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했다. 일거수일투족에 배어있는 말씀의 교육이라고 할까. 주일학교에 내보내고 매일 가정제단을 쌓는 것으로 우리의 자녀교육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처럼 사람의 홍수, 정보의 홍수, 악의 홍수가 범람할 때, 순간순간, 모든 것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심어줘야 한다. 예배드릴 때만 기록하고 나머지 생활 속에 악이 있다면 어찌 자녀에게 좋은 것을 바라겠는가.

사기를 치고, 남을 아프게 해서 번 돈으로 딸 하나를 애지중지 기른 어느 사기꾼이 있었다. 그 딸이 아버지의 더러운 돈으로 대학까지 나온 뒤에 아버지를 향해 침을 뱉었다는 슬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가면 속에 묻힌 더러움을, 또 그 추함을, 아이들은 너무나 빨리 알기 때문이다.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행위까지 연결된 말씀의 교육은 아무리 밀려오는 세상 파도가 험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굳건히 세워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매사에 모범을 보여주도록 늘 경건해야 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그 이유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아이들의 열등의식을 식혀줄 것이며, 동절화의 압력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을 비난하는 친구들을 향해 과감하게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우길 수 있는 확신은 대대하게 가르치는 교육에서 결코 나올 수 없는 신앙이기 때문이다.

입시에 질리고, 사춘기의 계곡에 떠는 아이들은 무단가출하고, 말없는 고독한 아이로 변한다. 무단결석도 하고 이유없는 반항으로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며 도벽으로 사회에 그들의 불안을 표현하기도 한다. 점점 늘어나는 비행청소년의 문제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바라보는 안된다. 바로 그 곳이 우리 자녀들이 얹혀 살아야 할 현장이기 때문이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굳건히 설 수 있는 자녀를 기르기 위해 우리의 신앙 교육을 깊이있게 점검해서 무장해야 한다.

김창인목사 저서목록

설교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400면	5,000원
칭찬 듣는 교회	423면	5,000원
절기 설교집	456면	5,800원

직분자 교육용 교재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일군	205면	2,200원
--------------------	------	--------

평신도를 위한 말씀시리즈

■ 교회란 무엇인가	87면	700원
------------	-----	------

■ 서로 사랑하자	70면	700원
■ 성도의 시험	70면	700원
■ 선교란 무엇인가	68면	700원
■ 성도의 가정	87면	700원

근간 발행예정

1. [예식과 설교]
2. [사가서 설교집]
3. [복음서 설교집]
4. [이사야서 강해(1)]

현대가정에서의 고부갈등



이 경 애

(대학부 교사·숙대강사)

근대화가 수반하는 산업화와 도시화는 가족의 형태면에서 핵가족화를 촉진시키고 있으며 서구 사회의 평등주의, 개인주의에 기반을 둔 핵가족 이념의 유입은 가족에 대한 의식면에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지배-복종의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부계 가족(父系家族)에서 발생되어지는 가족관계상의 여러가지 문제점들은 가족원(家族員)의 내면에 축적되어 왔을 뿐 표면화 되지는 않았었으나 오늘날 가부장적(家父長的) 권위주의의 붕괴는 가족 내부의 상하질서를 약화시켜 가족원의 심리적 갈등을 억압하는 힘을 잃게 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고부관계에도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과거의 전통적 가족제도 속에서의 고부간의 갈등은 며느리의 일방적인 시집살이였으나, 오늘날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사람이 벌이는 각축전에 의한 갈등이 표면화 됨으로써 실제적으로는 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가족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 고부갈등의 발생요인

첫째 요인은 전통적 가족규모의 붕괴로 인한 시모(嫗母)의 권위저하(權威低下)이다. 해방이

후 본격적으로 밀려온 개인주의 사조(思潮)때문에 종래의 「家」와 「孝」의 권위가 흔들리게 되었으며, 전통적인 시모의 권위 또한 급후 급속도로 저하되고 있다.

권위주의에 기반을 둔 가부장제도적인 확대가족으로부터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의 전환은 외형적인 가족구성 형태상의 변동에만 그친것이 아니라 가족구조의 내부적인 면에도 현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물질적, 정신적, 그리고 제도적인 모든 면에서의 변화와 그 압력은 가족집단의 구조와 기능의 변동을 초래했으며, 그것은 또한 가족성원의 지위와 역할의 변동을 수반하게 마련이다.

가족이 생산과 소비 그리고 노동과 휴식을 취하는 경제생활 공동체에서 소비단위로 축소됨으로 인하여, 전통사회에서 존경을 받던 노인의 지식이나 생활경험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시모의 권위저하를 촉진시켜 종래의 가계의 주부권(主婦權)이나 며느리에 대하여 가문의 전통을 전달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잃고 다만 집보기나 아이보기 또는 가사의 일부를 보조하는 역할을 겨우 배당받게 되었다. 반면, 자부(子婦)의 교육수준은 높아져서 무조건 순종하고 인내하는

며느리의 지위에 반발하는가 하면 불만을 공공연히 표현하고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최재석교수는, 농촌가족에서는 시모가 여전히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나, 도시의 시모동거 가족에서는 이미 전통적 가족에서 뚜렷이 나타나 있던 시모의 권력은 현저하게 쇠퇴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Blood와 森岡清美도 고부간의 세력관계에 언급하면서 과거의 <시어머니 우위형>에서 점차<며느리 우위형>으로 고부간의 세력이 변모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시모의 권위약화와는 상대적으로 자부의 지위상승이 억압되어 왔던 고부간의 갈등을 표면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요인은, 가사운영권을 둘러싼 문제이다.

주부권(主婦權)을 둘러싼 문제는 권위구조에 관한 문제로서 그것은 가부장제도적 규범을 배경으로 하여 시모에게 결정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원천이 되어왔다. 즉 가부장제 대가족제도에서는 가족의 생산과 소비생활의 책임과 주도권은 부모에게만 있었으며, 자녀교육, 가사의 운영과 가게의 모든 관리는 전적으로 시모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 모든 주부권을 며느리가 당당히 주장하기에 이르러 고부간에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Bell은 시모와 며느리의 역할들은 그들 관계에 있어서 빈번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이 비록 서로 다른 많은 역할 경험을 가진 두 개인일지라도 그들의 성인역할이 본질적으로 서로 같다는 점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林貞子의 가정생활과 시모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현대의 대다수의 젊은 여성들은 결혼 후 형편상 시모와 동거하게 되더라도 주부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시모에게 철해 또는 간섭받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李泰賢의 한국기혼여성의 고부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도 도시나 농촌을 막론하고 시모와 동거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계관리권이 시모에게 보다는 자부에게 보다 더 많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민

주가정으로 일컬어지는 미국의 가정체제에 있어서도 흔히 볼 수 있다.

Leslie는 「두 주부가 함께 공존할 만큼 큰 가정이란 없다」고 단일가정안의 이중주부의 위험을 지적 했으며, 또한 시모에 대한 자부의 불평 중 가장 큰 것은 가정관리면에 관한 간섭과 아들 가정에 정신적 위압을 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시모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해오던 살림살이의 주도권을 며느리에게 내주고 싶지 않을 것이며 나이가 많아도 대다수의 시모들은 가정의 명령권은 시모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林貞子의 연구에서도 며느리와 동거하게 되더라도 가(家)의 운영권을 넘겨주고 싶다고 희망하는 시모는 극히 적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며느리가 가정관리면에서 새로운 권한 행사를 하려할 때 시모는 가정이 자기의 세력이라고 생각하며 좀체로 지배자란 입장을 벗어나지 않으려 함으로 해서 다같이 주부의 입장에 있는 시모와 자부는 살림살이의 주도권 문제에서 대립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셋째 요인은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扶養意識)의 약화현상이다.

어느 사회이든, 자기의 노동, 재산으로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있는 것이며, 이러한 사람을 어떤 형태이든 부양을 하여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문제이거나 법률문제 이전의 도의적 당위문제(當爲問題)이다.

인간의 노후생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식가족과 동거하느냐에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사회변동에 따라 어느 쪽이 노인의 복지와 안락에 이상적이나는 오늘날 큰 논란이 되고 있다.

Burgess는 부모부양 감소의 원인으로 ①부모모실 젊은이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모시는 경우라도 그 책임이 더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부양의 도가 더욱 감소되고, ② 핵가족화의 경향으로 가족생활구조상 딸 식구와의 동거가 거북스러워지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감소되며, ③ 노인의 생활수준이 차츰 높아지는

경향 때문에 더욱 별거를 당연히 여기게 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미국의 핵가족은 부부나 자녀를 중심으로한 가정사회문제를 중시하고 노인부양은 국가,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로 자녀의 사적부양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 사적부양의식마저 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로 자녀의 사적부양에 전적으로 노후를 의존해야만 하는 현실의 노부모들과 자녀들간의 동거, 부양에 대한 기대와 실행의 불일치는 고부간에도 작용되어 오늘날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고부갈등이 자세대(子世代)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결혼한 부부는 새로이 당면하고 또 거기에 적응해야 할 여러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새로 성립된 그들과 양친간의 관계이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결혼함으로써 좋던 싫던 남자는 처가, 여자는 시가와 새롭고도 밀접한 관계를 맺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관계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며느리와 시모간의 관계이다.

Duval에 의하면 시가족 중에서 자부와의 관계가 가장 원만하지 못한 대상은 시모(36.8%)로서, 시부나 시동생에 비해 심각한 불평의 대상이 되고 있다.

Rockwood, Lemo 그리고 Mary Ford는 시가와 관계가 결혼부적응의 원인중 3위(38.5%)를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결혼생활에 있어서의 빈번한 골치거리의 원인임을 밝힌바 있으며 또한 Landis의 조사결과에서도 행복한 결혼생활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시가족과의 관계는 두 번째로 곤란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柳嘉孝에 의하면,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부부싸움의 발생 빈도는 47.4%로써 시모와의 불화가 자세대 부부싸움의 중요한 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고부간의 불화가 모자관계(시모와 남편)와 당사자간(고부간)의 친밀도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함으로써 오늘날 고부간의 갈등은 더욱 더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3. 제언(提言)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보다 바람직한 고부관계의 수립을 위하여

첫째, 시모는 자기의 위치나 역할을 확실히 인식하고 며느리를 가정관리자로서 그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이해하고 그의 권한을 인정하며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서 원만한 고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둘째, 사회구조의 변화로 우리나라의 가족이 소가족 내지 부부중심의 핵가족화되는 경향에 따라 며느리로서의 역할보다는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중시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자부는 시모의 태도나 행동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며 자신의 배우자를 키우기 위해 물질적, 정신적으로 헌신해 오신 시모에 대해 부모로서의 존경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결혼이란 부부 두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시가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고부간에 발생되는 갈등의 조정은至難한 일에 속하지만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두 사람의 입장을 같이 이해하여서 지혜롭게 조정함으로써 고부 양자간의 불만을 저하시키도록 해야한다.

넷째, 사회적으로는 노인학교나 주부교실, 그리고 교회나 시민대학 등에서 여성의 결혼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한 방안으로 고부관계에 관한 문제들을 강좌를 통해 현실적인 문제로 다루어 줌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고부관계의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국가는 사회복지정책의 하나로서 보다 빨리 노후생활보장의 증진에 노력하여야만 한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가 그리 하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종적인 바른, 성숙한 관계는 가족관계, 고부관계의 횡적인 화목에 있어서 그 첨경이며 갈등해소에 그 기본임을 앞서는 안될 것이다. *

6·25 회상



조 현 명
(장로·출판국장)

1950년 6월 당시 필자는 교통부 무선통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철도무선뿐만 아니라 항공무선 시설의 신설과 보수공사에도 관계하고 있었다. 그 당시 비행장 시설도 없었고 국제공항이란 말도 없었다.

나는 강릉에 설치한 항공통신소의 무선시설 보수공사를 위한 출장명령을 받고, 직원 L씨와 공사업자 A씨와 같이 6월 23일 아침 6시 종로 3가 국일관 골목에서 강릉행 직행버스를 타고 서울을 떠났다. 그 날 저녁 강릉 시내 개울을 지나 동쪽에 있는 「근화여관」에 투숙하였고 6월 24일 항공통신소에 나가 기계를 시험한 결과 제주와 부산과의 교신은 잘 되었으나 부평(富平)과의 교신이 잘 안되었다. 여관을 「강릉여관」으로 옮긴 다음 날인 25일 아침에 사이렌이 요란히 울려 여관 주인에게 물으니 38선은 늘 불안하고 작은 교전이 있다면서 가끔 있는 일이라고 하였다. 오전 중 비가 조금 내렸고 바다의 물결이 높았다. 바닷가 부근에는 무덤이 많았는데 그 무덤들은 이북 간첩들이 납치하다가 붙잡혀 총살당한 시체를 묻어 버린 것이라고 하였는데 당시 북한에선 간첩을 무수히 납치하여 참수시키고 있음을 여실히 말해 주고 있었다.

간첩을 총살한 후에는 국군이 반드시 민가에 와서 삼을 빌려감으로, 삼을 빌려줄 때에는 삼임자가 삼을 간수코자 따라가 시체 매장을 거들게 된다고 하였다.

아침에 통신소에 가면서 논에서 길 메는 농부들을 보았으나 통신소에서 나올 때에는 포성이

요란했고 빨갛게 단 포탄은 우리들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이 보였으며 포성은 멈추지 않았다. 그때에 머리띠를 하고 죽창을 든 청년들을 가득 태운 트럭들이 북쪽을 향하여 달려 갔다. 얼마 안 되어 앞서 지나간 트럭들은 새파랗게 질린 청년들을 싣고 되돌아오고 있었다. 그때까지도 새벽에 북괴가 기습적으로 38선 전면 납치한 동란이 일어난 줄 몰랐다.

주문진 쪽에서 수많은 피난민들이 끊임없이 강릉시내로 밀려 내려오고 있어 강릉시민은 모두 공포와 불안에 쌓인 모습이었다. 피난민 중에는 꼴을 먹이려 들에 나갔다 소를 몰고 내려온 사람도 있었다.

계엄령이 내려 시내통행이 금지되어 뒤통을 통하여 민사 사령부를 찾아가 서울로 갈 길을 찾아 보았다. 방송국 로컬 뉴스는 아군이 내일은 주문진, 모래는 원산·청진으로 진격한다는 허위 방송이 계속되고 있었고 통신요원을 잘 만났으니 북진에 같이 행동하자는 것이 아닐까? 그 자리를 빠져나와 8사단의 P중령을 찾았다. 그러나 그는 한 주일 전에 서울로 갔다는 것이다. 여관으로 돌아와 잘 들리지 않아 버려두었던 여관집 라디오를 손보아 서울방송을 들어 비로소 38선이 터짐을 알게 되었다.

그날 저녁을 먹으려 했으나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아 숟가락을 놓으려 하자 A씨는 억지로 먹여두라는 것이다. A씨는 해방 직전 청진출장중 소련 폭격기의 소나기 기관총 사격을 받고 여러 개 굶었던 일을 말해 주었다.

다음 날 26일에는 시내에 시민은 없었고 헌병만 있었다. 헌병대를 찾아가 서울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하였다. 서울로 갈 버스를 찾아오면 서울로 보내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여러 시간 헤매다가 우리들을 태워다 준 운전기사를 만났다. 그는 서울에 가족이 있으니 잘 되었다고 하면서 감추어두었던 버스를 내놓기로 약속하여 곧장 헌병대로 가 헌병소위에게 차번호와 차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그 버스는 자기네들이 이용하겠다고 함수하는 바람에 애타게 찾아낸 우리들은 배신을 당하고 말았다.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대관령 꼭대기에서 쓰아대는 포성에 방안의 미닫이가 떨어져 나가며 구들장이 울리고 집전체가 요동해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강릉을 떠나 제천까지 걸기로 작정하였다. 제천역까지 가지만 하면 단기(單機·기관차)라도 타고 서울에 들어갈 것이고, 도중 영월발전소에 실어 나르는 20여대의 무연탄 트럭편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는 어수룩한 생각도 해보았으나, 하나도 들어맞지 않았다. 난리통에 어디 석탄운반 트럭이 있을 리가 있겠는가!

같은 여관에 든 신문기자들은 소식이 빨랐다. 벌써 인민군이 비행장에 들어 왔으며 「옥계」에 들어온 인민군은 삼당령으로 올라갔다는 반갑지 않은 소식을 들려 주었다.

6월 27일 오전 10시 강릉을 떠나면서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가지고 있는 신분증을 찢어버렸고 나의 염려와 근심 모두가 기도의 제목이 되었다. 대관령도로가 군용도로로 사용케 되니 민간인은 공비가 많이 나온다는 삼당령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삼당령으로 피난민이 몰려와 계속적인 행렬로 인산을 이루었다. 삼당령을 높이 바라보며 산 속에서 솟아 오르는 연기는 공비들이 밤을 짓는 연기라고 하면서 불들리면 목이 잘리운다고 하였다.

강릉 시내에서 삼당령 산 밑까지 20리, 삼당령을 넘는데 80리, 꼬불꼬불 산길 100리를 걸어서 「임계」에 도착하였다. 피난 도중 촌락마다 주재소에는 경찰관은 없었고 좌익계에 있는 듯한 그곳 청년들이 지키고 있었다. 청년들의 심문을 받고 통과할 때마다 그들이 허리에 찬 수류탄이 우리들 등 뒤에서 터질 것만 같아 무서움을 느

꼈다. 포성은 계속 우리들을 뒤따르고 있었다.

처음에 다리가 아프면 잠시 쉬었다 걷고 밤 중에도 걸기로 하였으나, 쉬는 대신 걷는 속도를 줄이고 공비의 피습을 염려하여 야간보행을 안하고 임계에서 여관에 들었다.

28일 임계를 떠나 정선경찰서에 들러보니 서울은 공산천하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경찰서에서는 우리들에게 전세(戰勢)를 물었다. 전세가 불리한 것은 확실하나 무어라 답하기 힘들어 '포성이 계속 우리들의 뒤를 따르고 있다'고 얼버무리고 말았다. 경찰서 앞에는 차량을 징발하여 빨간 딱지를 붙여 놓고 차의 방향은 서울 쪽으로 돌려놓고 있었다. 정선강은 남한강의 상류이다. 정선 비행기 재를 넘어 강을 건너야 했다. 29일 트럭편을 이용하여 제천으로 향하기로 하였다.

그날 저녁 제천역에 도착하니 한강 철교를 폭파했다는 것이 아닌가! 벌써 공기가 이상해지고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져 날이 새면 제천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직원 숙직실로 들어갔다. 밤중에 춘천에서 후퇴한 경찰관 여러 명이 우리를 잡자리에 끼어 들면서 칼빈 총으로 탱크를 쏘니 쏘짝 안하더라는 '무비 유헌'의 말을 하였다. 30일 제천역에서 군용 열차편으로 영주·대구를 거쳐 대전에 이르렀을 때 교통부는 대전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6·25는 동족간의 상잔의 비극을 가져왔다.

이느덧 6·25도 36주년이 되었다. 우리들은 지긋지긋하던 6·25동란을 상기치 않을 수 없다. 6·25를 통하여 전쟁의 잔인함과 쓰라림을 절실히 느끼도록 쓴 맛을 보았고 많은 고생을 당하였다. 6·25의 큰 상처는 아직도 우리들 마음 속에 생활 속에 남아 있다. 6·25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일 뿐만 아니라 더 엄청난 비극의 씨로써 우리들 앞에 가로 놓여 있다. 「적화통일」의 야욕을 채우려고 재남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북한 공산당에 대하여 틈을 보이거나 조금도 방심할 수 없는 위급한 순간이 계속되고 있는 이 때에, 양단된 나라에서 4분 5월 갈기갈기 찢겨져 흩어지면 누가 덕을 보겠는가!

국방없이 겪은 6·25의 교훈을 잊어버리는 날 더 큰 비극은 시작될 것이다. *

사도신경총론Ⅲ



임종만

(목사·북서울교회 시무)

(4) 거짓 사도에 대하여

우리는 위의 말한 사도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거짓 사도들을 밝혀 내야겠다.

고후 11:13에 『거짓 사도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하였고 계 2:2에 『자칭 사도를 시험하여 거짓을 들어 내어 칭찬을 받았으니』라고 했으니 우리도 거짓 사도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요 자칭사도를 판별해 보자.

1) 로마교의 홍의주교회(紅衣主敎會=교황의 정부)가 있어서 자칭 사도회라 하여 여기서 교황을 선출하여 사도의 계승자라고 한다. 그리고 뽑힌 교황을 최고의 권위자로 높인다.

그런데 역사에 보니 4세기초에 이르러 베드로가 25년간 로마의 교황지위에 있었다는 조작 전설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 베드로가 교황에게 사도권을 물려 주었다는 말이 없으니 믿을 수가 없고 또 역대교황들이 사도들처럼 특수자격이 없었으니 사도의 계승자라고 볼 수가 없다.

2) 한국의 문선명씨도 사도의 계승자는 아니

다.

외람되게도 그는 사도들처럼 성경을 기록한다고 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구약은 1경(經) 신약은 2경 내가 쓴 것은 3경이다”고 했다. 이 책을 완성된 성경이라고 했다. 아직 출판이 되지 않았으니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으나 그들의 말은 “기독교는 3이란 수가 중요하다. 삼위일체 하나님, 3일만에 부활등을 보아서 그렇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은 2권 뿐임으로 제3경이 있어야 비로소 성경으로 완성되는 것인데 이를 쓴 사람이 한국에 있으니 문선명이다”고 하였다 (엄요셉著 韓國基督教에 對한 理解 p. 48~49).

그러나 그는 성경이 말하는 사도들처럼 특수 자격이 구비되지 못했으며 2천년간 모든 성도들이 성경 66권을 부족하다고 생각해 본 일이 없었으며 사도 외에 인물들이 자기가 쓴 것을 성경이라고 불러 달라는 말은 이때까지 없었으니 그는 분명히 거짓 사도인 것이다.

(5) 신경이란 무엇인가?

사도신경이란 사도들의 신앙고백문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신경대로 믿는 것이 기독교의 정통신앙인 것이다.

그리고 정통신앙이란 속성으로된 신흥종교가 아니고 오랜 역사적인 계통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딤후 1 : 5에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고 하였다.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이 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는 제 멋대로 믿은 것이 아니고 바로 믿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바른 신앙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바른 신앙은 성경을 토대로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다 (딤후 3 : 15), 따라서 디모데의 신앙은 바른 믿음 곧 정통의 신앙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사도신경은 성경의 요긴한 골자를 뽑아 엮은 기독교의 정통신조로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2천년의 긴 세월 동안 불신앙의 세계에서 깨끗한 신자들의 입술로 고백되어 내려왔고 순교로서 거룩한 투쟁을 해 온 진리문서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도신경의 신앙고백대로 우리가 진심으로 믿기만 한다면 누가 무슨 말을 하던지 우린 정통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이다.

그런데 근래에 이르러 현대 자유주의 신학 곧 신신학이 들어와 신정통이니 새신앙고백이니 하여 정통신조를 깨뜨려 버릴려고 수작들을 하고 있다.

어느 도시교회서 연합부흥사경회를 가졌을 때 어느 교인이 신학대학교수인 K 목사에게 물기를 “보수신학과 신신학 어느 것이 좋습니까?” 라고 했더니 반문하기를 “새 것이 좋습니까? 헌 것이 좋습니까?”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가 대답하기를 “새 것이 좋겠습니다!”고 했더니 강사가 말하기를 “그와같이 신신학이 좋은 것입니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뻔처럼 간교한 말인가.

그러나 물건은 새 것이 좋을런지 모르지만 신학은 그럴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는 변치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리를 탐구할때 배워야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하여 날마다 성

경을 상고할 것이지 “그렇지 않는가”라고 의심 하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절대로 틀림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이다.

사도신경은 틀림이 없는 성경에서 뽑아 엮은 진리문서이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믿은대로 믿는 것이 정통신앙인 것이다.

6. 사도신경의 내용분해

(1) 성부에 대한 신앙고백

- 1) 전능하사
- 2) 천지를 만드신
- 3) 하나님
- 4)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2) 성자에 대한 신앙고백

- 1) 그 외아들
- 2) 우리 주
- 3)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 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 ②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 ③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시며
 - ④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 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3) 성령에 대한 신앙고백

- 1) 성령을 믿사오며
- 2) 거룩한 공회와
- 3)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 4)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 5) 몸이 다시 사는 것과
- 6)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 아멘 —

(다음호 계속)

바울의 교회 교육관(2)



조 영 길

(목사·교육위원장·6교구담당)

사도 바울의 교회 교육관(敎會教育觀)에 대하여 지난번 호에서 세가지로 살펴 보았습니다. 그것은 :

1. 교회 교육의 필요성의 제시와
2. 교육자 곧 훌륭한 교사가 있어야 하고
3. 교육의 시기로서 조기 교육의 문제를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그 뒤를 이어서 나머지 문제들을 생각하여 보려고 합니다.
4. 교회 교육의 내용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누가, 언제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못지않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과 교과과정(커리큘럼, Curriculum)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교회 교육의 내용이 분명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

경”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성경”(딤후 3:16, pasa grapy, all scripture) 여기에서 바울이 제시한 모든 성경이란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신구약 66권의 성경은 우리 모두가 받아 믿어야 할 유일한 정경(正經, Canon)입니다. 이와같이 교회 교육의 내용과 교과서는 오직 성경 뿐인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성경이외에 다른것을 가르치면 안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올바른 신관과 인생관과 우주관과 가치관과 내세관을 알게하여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도 가르쳐 주기 때문 입니다.

“종교가 없는 교육은 인간을 현명한 악마로 만든다”(웰링튼)라고 한 말이 생각납니다. 그가 여기에서 ‘종교’라고 한 말은 ‘성경’이란 말로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 합니다. 비단 교회 학교 교육 뿐만이 아니라 세속사회 학교의 교육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사상에 입각한 유신론적 교육이 아니고서는 참다운 인간상을 만들어 낼 수는 없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미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학자이시며 한때 미국의 예일 대학교의 총장직을 지내셨던 윌럼 L. 웰프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씀 하었다고 합니다. “나는 젊은이들에 대한 대학 교육의 필요성을 철저하게 믿는다. 그러나 성경이 없는 대학 교육 보다는 대학 교육이 없는 성경 지식을 더욱 값진 것으로 믿는다”라고...

정말로 옳은 견해라고 봅니다. 무슨 과목 무슨 교육 내용 하지만 성경보다 더 훌륭한 교과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이 교회 학교 교육에야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쉽고도 조직적으로 성경을 가르쳐야만 할까? 하는 문제가 따라 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기술적이고도 효과적인 커리큘럼(Curriculum, 교과과정)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쉽게 풀이하여 가르칠 수 있는 계단식 공과 같은 것이 체질에 맞게 개발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사(敎師)와 학생(學生)과 학교(學校)를 가리켜 교육의 삼대요소 라고 말하지만 이 삼요소가 완비 된다고 할지라도 교육의 내용 즉 분명하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교과서의 문제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교육의 내용

은 “솔라 스크립투라!”(Sola scriptura. 오직 성경)인 것을 잊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5. 교육의 방법입니다

교육의 방법론에 대하여서는 수 많은 교육 학자들이 앞을 다투어 연구 발표를 하여왔고 또한 부단히 연구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같은 방법론을 살펴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교육가 사도 바울은(딤후 4: 16~17) 네가지 방법을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첫째, 교훈의 방법입니다.

교훈(pros didaskalian)이란 말씨는 교리(doctrine) 또는 교훈(teaching)으로 번역되는 말입니다. 사람을 교훈할 수 있는 표준의 책은 성경 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성경은 사람을 교훈하고 마땅히 가르쳐야만 할 책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육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에 성경으로 교훈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교훈(teaching)이란 말 속에는 ‘사람을 가르쳐서 이끌어 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끌어 주는 교육 방법이라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생명의 길로, 성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가르치고 이끌어 주는 교육을 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 책망하는 방법입니다.

책망(pros elegmon)이란 말씨는 ‘확신’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책망하는 교육 방법은 어디까지나 확신을 가지도록 가르치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도록 가르치지 못한다면 교육에는 실패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구원 심판에 대하여, 죄악과 악마와 이단에 대하여, 불확실하게 가르쳐서는 아니되고 확신하도록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부 어거스틴은 일찌기 “나는 알기 위하여 믿는다”고 하지 아니 하였습니까? 그리고 이 현실 세상도 날이 갈수록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 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하는 때이므로 무엇보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세째, 바로 잡아주는 방법입니다.

바르게함(pros epanordosin)은 ‘다시 올바

른 자세로 선다’는 뜻입니다. 피교육자들로 하여금 성결하며 바른 믿음과 도덕적 바른 자세로 서게하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넘어진 자를 바로 세워주고 쓰러진 자를 바로 일으켜 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바르게 한다’는 말씨의 뜻은 ‘바른 위치에서의 회복’이라고 하였습니다. 교육이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더우기 교회교육이란 실락원하고 죄 가운데 넘어진 인생들을 생명의 길에서도도록 바른 위치에서의 회복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네째, 의로 교육하는 방법입니다.

의로 교육함(pros paideian)은 ‘의롭게 시정 또는 훈령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고 할지라도 그 방법에 있어서 의롭지 못하거나 또한 의롭게 하지 못하는 교육은 어떤 의미에서 참된 교육이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학교 교육은 언제나 의롭게 교육하고 의롭게 되도록 시정하여 나가는 교육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중에 하나가 바로 죄인(자연인, Natural man)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Spiritual man)서도록 가르쳐 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6. 교육의 목적입니다

교육에는 무엇보다 그 목적이 분명하고 뚜렷하여야만 합니다. 목적이 없는 교육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아니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학교 교육의 목적을 네가지로 밝혔습니다.

첫째,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확고부동한 믿음에서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하는 교육을 뜻합니다. 믿는 이들이 세상따라 변하고 확신치 못하고서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아무것도 안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로 믿는 믿음 위에서 확고부동하게 설 뿐더러 그같은 상태를 계속하여 유지하여 나갈 때에 옳은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하라, mene : 현재 명령형으로 계속하여 머물러 있으라는 뜻입니다)

둘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

금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여 들임으로서 믿음을 얻게하고 성경을 더욱 깊이 앎으로 거룩한 지혜를 얻어서 결국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같은 지혜는 그노시스주의(gnosticism, 영지주의)가 말하는 직관적인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계시적인 객관적인 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가르쳐서는 이같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절대로 얻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온전케(artlos)한다는 뜻은 온전하고 구비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 일하고 쓰여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쓰시는 사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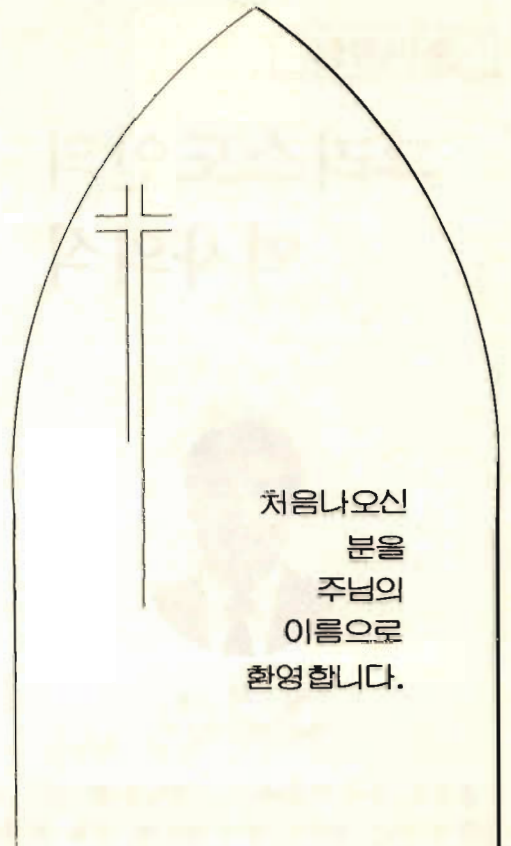
교회 교육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재로 키우고 길러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하게 구비되도록 키우기만 하면 일단은 교회 교육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네째, 모든 전한일을 행하기에 온전케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대하는 바를 행하기에 아무런 부족함도 없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삶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자신들이 복을 받아 살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교회 교육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사도 바울의 교회 교육관(敎會敎育觀)에 대하여 몇가지로 살펴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을 받아드린 지가 이제 1세기가 지났습니다. 교회는 바로 교육이란 차원에서 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교육을 전개하므로써 이 민족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동남아 그리고 온 세계에 복음을 수출하는 우리 한국교회의 사명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까. *



처음나오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신자부는

- 처음 믿으시는 분(이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중에서도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기 원하시는 분)을 위하여 아주 유익하고도 꼭 필요한 기본적인 구원의 도리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 부득이한 시간 사정으로 새신자부에 참석치 못하는 분은 통신으로 공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 교육시간은 매주일 3부(10시30분) 예배 후(12시)에 본당 103호실에서 6개월간 공부합니다. 이 교육과정을 마치신 분은 학습을 받게 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정성껏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주일에 새 신자부에서 만나 뵈게 될 것을 바랍니다.

총현교회 새신자부

그리스도인의 역사의식



김 차 생
(장로·출판국간사)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치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자기 나름의 삶의 의식이 있다. <왜 사느냐?>라는 궁극적인 질문 앞에 그들의 대답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선 오늘의 위치를 역사의 안목에서 가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

이것은 인류조상 아담까지 주신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하다. 나를 향하여 던져지는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여야 할것인지 스스로를 성찰할 수밖에 없다.

지금의 나의 위치가 현재의 위상(位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긴 물줄기 속에서 중요한 하나의 매듭이 되며, 크나큰 점이 되어 그 의미를 남긴다.

우리의 존재는 역사 속의 한 핵이다. 보잘것 없고, 자랑할 것 없어도 나의 삶이 나로 하여금 역사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우리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긴 역사의 흐름 속에 함몰되어 아무런 의미도 나타내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나타내어야 하며, 스스로가 가야 할 방향이 정립되어야 한

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른 역사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 역사의식이란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삶의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의 역사의식이란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나? 하는데서 출발된다.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귀하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형상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자신의 존재 의의를 상실하고 만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라는 의식은 내 모든 삶의 기초가 되며 역사의 바탕이 된다. 이것은 역사관의 출발점이 되며 사상의 저변을 형성한다.

이러한 의식을 가진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느냐?>라는 방향의식을 가진다. 오늘 의 현실 속에서 내가 가야할 길이 무엇이며,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눈 앞의 이익에 집착되어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 그래서 나무는 보아도 숲은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을 부인하지 못한다.

이제, 우리의 시계(視界)를 보다 넓게, 보다 멀리 할 필요가 있다. 눈 앞의 일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장자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보다 큰 역사를 기대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의 역사의식이란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며, 자신이 가야할 길에 대한 바른 의식이다. 이러한 의식의 표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주시하자.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의 불협화음을 듣는다. 그것 보다는 우리 교계에서 <신앙을 빙자한 불신앙의 작태>들을 수없이 목격한다. 하나님을 위하노라고 하면서 자신을 위하는 모습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땅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봉사와 주님의 축복

최 순 철
(전 주교교사 및 찬양대원)

주일학교 교사였던 나는, 어린이들에게 항상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꿈을 가지라”(Boys be ambitious in Jesus Christ)는 것이다. 그런 중, 갑자기 그 말은 되돌아왔다. “너는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있느냐? 너의 꿈은 무엇이나?”라는 물음이었다. 내 자신을 돌이켜 보건데 많은 문제를 가진 대학생이었다. 그것은 내가 진학한 대학과 전공에 만족치 못하고 있었다. ‘나는 다른 재능이 있는데 괜히 공대에 왔어’ ‘나는 내가 다니는 대학에 만족할 수 없어’라는 생각에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모든 것을 감사하라고 나에게 명하였다. 나는 나의 현실을 인정하고, 감사하였다. 그 때 주님은 나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다. 그것은 먼 장래에 걸친 여러가지 꿈이었다. 나는 일기장에 그것을 상세히 기록하고, 그 꿈의 성취를 위해 기도드렸다. 그 중의 하나는 日本 東京大学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것이었다.

지난 80年, 대학원 진학과 함께, 나는 찬양대에 들어갔다. 훌륭한 주일학교 교사가 되기위해 찬송을 조금 더 잘 부르고 싶었다. 찬양대 입대 시험은 연습에 꼭 참석한다는 조건으로 겨우 통과 되었다. 그런이후 나는 찬양대에서 격주마다 가는 군병원전도에 같이 가자는 권유를 받았다. 음악실력이 탄로 날까 걱정도 되었으나, 병원전도에 관심이 있어, 진학한다는 조건으로 따라갔다. 40분이상 버스를 타고 군병원이 있는 교외로 나가는 것은, 토요일연습과 약 4시간의 주일예배, 성가연습을 마친 후이므로

무척 피곤하였다. 그러나, 훌륭한 리더와 열심있는 소수의 대원들은 병원전도를 몇 년이나 계속하고 있었다. 군병동 가득히 성가대원의 중창과 뜨거운 기도가 울려 퍼지자, 육신과 영혼이 상처받아 병석에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젊은 병사들은 여기저기서 위로받고 눈물짓는 것이었다. 그 후의 간단한 전도는 실로 폭발적인 효과였다. 병원전도대에서는 베이스 파아트의 대원이 부족했다. 나는 이 눈앞에 보이는 전도의 황금어장에 선배 찬양대원과 함께 병원전도하기로 결심하였다. 병원전도에서 부르는 곡은 약 10곡 정도이므로 노래에 자신이 없는 나도 반복되는 참가 속에서 어느덧 힘차게 한 몫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때 대학원 석사과정의 졸업을 앞두고, 東京 대학 박사과정에서 주님의 돈으로 공부하기를 원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으나, 추진할 능력이 없었다. 그 때 언제나 병원전도에서 부르는 찬송이 생각났다.

“많은 무리를 헤치며 저기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의 옷소매를 만지기 원하네 진실한 마음으로 그 옷을 만지는 자에게 큰영광 나타내 뵈소서 하나님의 독생자”(새 498장)

주일학교 교사시절에 보여주신 그 꿈을 이룩하기 위하여서 나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가의 답은 언제나 소리 높여 병원전도에서 부르는 이 찬송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 꿈을 가능케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옷에 손대기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손을 앞으로 뻗치는 일이 필요했다(막 5:27). 믿음으로 간구하는 나에게, 옛과 같이 오늘도 역사하시자, 주님께서는 많은 경쟁자 가운데서 나를 82년 10月에 日本 정부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해주시고, 곧 東京大学박사과정에도 합격시켜 주셨다.

현실에 만족치 못하는 대학생인 나에게 주님께서 주일학교 봉사를 통해, 먼저 현실을 인정, 감사하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보여 주셨다. 또 찬양대봉사 중에서 꿈을 이룰 수 있는 문을 여는 추진력을 주셨다. 주님의 은혜로 단기간에 많은 연구실적을 내게되어, 모든 심사교수님이 인정하는 가운데 86년 봄에 東京大学에서 공학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다. 주일학교와 찬양대에서의 봉사를 통하여서 나는 이 축복을 받았다고 확신한다. 우리의 교회봉사를 주님은 기쁘시게 여기사, 우리에게는 꿈을 주시고, 그것을 이룩하게 하심을 깨닫게 되었다(빌 2:13). *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김 덕 희

(새가정부회원·선교찬양대원)

지혜의 크리스천은 복을 받고 믿음의 크리스천은 세상을 이긴다는 말을 생각하며 이 글을 씁니다.

결혼한 지 겨우 한달 반밖에 안되었는데 결혼생활에 대한 풍성한 간증이 있으리마는 그간 결혼하기까지에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 역사해 오셨는지를 간증하고자 합니다.

서른이 되는 신년 휴가에, 나는 신앙 서적 몇 권을 사들고 와서 방에 틀어박히자, 두려움과 절망의 감정을 안고 주님께 엎드려, 올해 6월이 가기 전에 내게 변화를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나는 대학원 진학을 하던가 아니면 결혼하게 해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응답은 정확히 6월 말에 내게 임했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생활의 변화가 아닌 심령의 변화였습니다.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음악을 좋아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은 음악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피아노를 칠 수 없다는 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음대 진학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대 재학 중에는 다행스럽게도 계속해서 노래를 할 기회가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졸업이 가까워 올 무렵부터는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수 없어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대는 함부로 쓰고 또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 방탕하면서 지내기를 수년간 계속했습니다. 내 영혼이 지칠대로 지쳤을 때 한 형제의 권유로 나는 다시 주님께 돌아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송동교회의 박일웅 목사님께 세례를 받던 날, 나는 무거운 돌짜 같은 손이 내 머리에 얹히는 느낌이 들면



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셨던 것을 나는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4~5년간 나는 교회 문턱만 밟고 다니면서, 내 힘과 실력으로 봉사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러기를 4~5년 계속하다가 서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믿음이 없었고, 결혼에 대한 마음의 준비도 없었으며, 결혼에 대한 주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전혀 깨달을 수 없어서 절실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내가 입사한 후부터 계속 아무 일도 하지못한 채 지내고 계신 아버지와 식구들의 문제가 더 절실했습니다. 이 마음은 후에 깨달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족을 구원코자 하시는 뜻이 계시던 것입니다.

82년 3월,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해 보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하던 중에 동생들이 하나 둘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일련정종을 신봉하는 열렬한 신자가 되어 가고 있음이 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가정예배를 드리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동생 정희가

주님과 만났고, 축복으로 결혼하게 된 때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섭섭한 생각도 들었는데 그때 주님은 “내가 너를 쓰기 원하는데 기쁘지 않느냐”라고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믿는 나에게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내가 정말 결혼하게 될까”하는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었습니다. 새가정부에서 K 집사님을 만난 것은 내게 큰 은혜였습니다. 그분의 기도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찾게 되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른 다섯이 되자 나는 독립할 결심을 하고 부모님의 승낙을 얻은 후 백일 작정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집을 보러 다니는 수고없이, 교회 앞에 이사온 친구의 집에, 더우기 믿음의 가정에 내 처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서른 셋이 된 남동생의 결혼을 위해 길을 비켜주어야겠다는 생각과 아울러, 이제 인생의 전반생은 갔고 후반생을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사한지 일년이 채 못되어 나는 결혼했습니다.

내가 가장 가난하고, 낮아지고 비참한 상태에서, 게다가 이런 젊음도 다 가신때에 하나님은 내게 결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셋방살이는 내게 많은 교훈을 안겨 주었습니다. 작은 물질을 조개이 풍성하게 쓰는 비결과, 심령의 가난함 속에서 누리는 천국의 기쁨과 만족을, 그리고 봉사와 기도생활의 즐거움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은혜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친구의 시어머님은 성질이 몹시 급한 분이셔서 여러 번 속상하는 일이 생겼지만, 나는 그분부터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서로 사랑하며 기도에 힘쓰게 되었던 일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는 학창시절에, 음악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성경을 선물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내게 찾아 오셨던 것이었으나 나는 거절해버렸던 것입니다. 그가 살만할채 나를 떠나간 후에야 나는 그 사람을 깨닫고 스스로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 사랑의 빛을 갚기를 내게 원하십니다. 나는 어릴적부터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는 생각을 줄곧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혼의 계획과 함께, 우리의 새가정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봉사」의 일을 준비하고 계셨고, 이것을 알게 되기까지는 십년이란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서른 여섯이 되는 86년 1월 17일에 주님은 어머니를 통해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남요호랭교회를 믿는 어머니를 통해 응답주시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지만, 사랑의 주님은 이 결혼을 통해 어머니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조건을 버리고 내게 주신 「봉사」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동역자를 구했습니다. 그를 처음 만나던 날, 어쩌면 이 사람이 내 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거둬지는 만남 속에서 내 기도예 대한 응답임을 확신했습니다. 나는 많은 가능성을 그에게서 발견했고, 믿음으로 그를 선택했으며, 지금도 믿음으로 소망 중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도 또한 나를 믿음으로 선택한 줄 확신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오던 날, 함 속에는 가족성경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는 행복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며”라고 시어머님이 넣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를 만난 후에야 나는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기 전”에 내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감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야 결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은 나의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 「봉사」의 사명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며, 만난 지 석달도 채 못되어 결혼한 탓인지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명에 대해서 잊지 않고 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날 기쁨으로 다시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가정을 이루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례를 맡아주신 목사님과 새가정부의 온 가족에게 감사드리며, 특별히 나의 신앙성장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며 돌보아 주신 K 집사님과 H 장로님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자녀에게 경건의 모범을 보이자

한 형 식

(집사·새가정부 교사)

부모가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여러가지의 모범을 보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경건이 가장 중요한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부모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자녀들도 꼭 같이 경건을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모가 그리스도를 그의 구세주로 믿어 말씀 안에서 자라가며 진실해지면 자녀들 또한 그러한 부모의 진실됨을 깨닫게 되어 역시 진실해질 것입니다.

사실 부모로서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한 가지는 자녀에게 삶을 잘 설명해 주는 일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의 삶의 상당한 부분이 자녀의 삶에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좋은 가르침을 받는 동시에 그릇된 본을 보게 되면 아이들에게는 혼돈이 일어나므로 자녀를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의 삶이 가르침의 본이 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한 목표와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도록(눅 2:52)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말해 주는 것이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며 듣는 것이 배우는 일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은 교훈보다 본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가르치게 되며 듣는 것과 보는 것 사이에서 혼돈이 있을때는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워 나가도록

도와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의 경건한 삶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부모는 매일매일 아니 매 시간마다 자신이 주님과 가까이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 그것에 순종해 가고 있는가?

부모가 이렇게 할때 그리스도는 부모의 삶 가운데서 그 빛을 발하게 되며 또 자녀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행동을 관찰하며 그것을 닮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닮기 원한다면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모순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자녀들 앞에 모순없는 삶을 보여 준다면 자녀들이 고백하기를 “저는 이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의 가정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저의 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과 같은 가정을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주님께 대하여 처음 배우게 된것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경건한 행동을 통해서였다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들었습니다.

부모로서 반드시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할 목표는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까지 자녀의 성격은 그의 가정에서 가족들의 관계와 그 동안 관찰한 분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끝으로 우리 부모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억하며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나게하는 일이며 그들이 이렇게 되도록 하는 최선의 길은 부모들의 경건한 삶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요삼 1:4)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

『범사에 네 자신으로 섰던 일의 본을 보여 교훈의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딤후 2:7~8) *

• 죄없는 자가 돌로 •

예수님 앞에 선 간음한 여인이 바로 「나」였음을 본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없이 생활해 온 「나」이기이다. 단지 여인이 유대인이었듯이 나 역시 하나의 크리스찬이었다. 그것 외에 가진 것이 없는 내가 예수 앞에 예수인으로 심판받고 있다. 먼저 은혜를(유대인이, 되고 예수인이 된 것)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소중히 간직 못했다.

이제 주님의 심판이 말씀으로 내게 주어진다. “다신 예수없이 생활하지 말라고”—이 전의 죄과를 이 후의 선으로 갚으라는 말씀이었다. 또 죄를 정죄(심판)하시는 분만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이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일방적인 명령분이 주어졌다.

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도 되지 못했다. 그들 만큼 율법적이고 종교적으로 살지 못했다. 그래서 대담히 죄인을 죄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하지만 오히려 형식적 종교생활 속에서 예수를 끝까지 못 아는 것보다 간음한 여인의 죄의 상태였지만 예수를 만난 것이 은혜인 줄 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예수와 생활 하니까……

사실 돌을 든 자나 돌에 맞을 자나 다 돌에 맞아야 한다. 든 돌로 자기를 쳤어야 할 돌! 그들은 자기를 치지 못해 결국 예수에게 던지고 말았다. 철저히 자신을 회개못하면 결국 그는 더 큰 돌을 들고 던진다. 내 자신의 큰 회개를 본다. 큰 결단이 요구된다. 그것이 없으면, 그것을 현장에 놓고 가면 다시 예수에게 던질 것이다.

예수 앞에 난 정욕체로, 교만체로, 무지체로 섰지만 예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인간 앞에, 율법적 제도 앞에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시간에서 거하라—나는 아멘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끝까지 예수곁에 있게 된다. (여인 처럼)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 받는다. 더욱 성경 속에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행하고자 결심한다. 하나님의 役事에서부터 즉 죄인임을 앞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함을…*

정 관 석
(청년부회원)

• 결과에 숫자에 집착하는 삶 •

오늘의 현실에 집착하는 내가 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아니 내가 깨닫고 쫓아가야 할 삶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것에 있어서 결과에 집착하여 인간의 판단에 너무 좌우하고 그 결과가 소극적으로 나타날 때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속엔 벌써 내 것이라는 것이 개입되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행하실진대, 인간적인 판단에 좌우하는 경우는 웬말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여 이용하는 경우라 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나그네 같은 이 세상 생활이 주님께로 향하는 성숙의 몸부림으로도 시간이 부족할 것을 세상의 잡다한 것에 잡다한 가치로 인한 판단에 눈이 돌아갈 틈이 있다는 것에는 내 자신과 얼마나 많은 투쟁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할 뿐이다.*

김 성 옥
(청년부 회원)

성수주일에 관하여

이 세 열

(목사·전도위원장·10교구담당)

문: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성수주일에 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십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입니다.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그날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먹을 것까지라도 미리 준비하고 가족이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예배시간에는 개회 시간부터 폐회 시까지 일절의 출입함이 옳지 않고 삼가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엄숙한 태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는 남은 시간은 종일토록 거룩히 지켜야 하는데 기도하고 성경연구하고, 영적 수양서를 읽고 공동회집하여 성경 공부하며 종교상 담화를 나누며 병자를 방문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불신자에게 전도하며 교회의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날 주일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일날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하는 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일, 예배후 남은 시간을 오락이나 인간적인 용무로 쓰는 일 등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뿐아니라 인생이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인간 자신이 사는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응답과 위로가 임하는 날입니다. 옛세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하루를 하나님께 바치고 쉬

면서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일해도 복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일하기 위해 하나님까지 잊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며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요, 인생의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둘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일과 안식일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는 했지만 주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초대교회에서는 주일을 지켰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으니...』라고 하였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라고 하였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매주일 첫날에...』라고 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낙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새출발을 시작케 한 날입니다.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또는 매주일 첫날에 모였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안식일날에 모였다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는 안식 후 첫날, 매주일 첫날에 모였던 것입니다. 옛세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하신 말씀은 옛세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을 쉬면서 지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주일이란 주님의 부활하신 날이요, 신약교회가 시작한 날입니다. 역사서적에 보면 초대교회는 안식일과 주일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을 쉬는 것은 성경에 교훈중 옛세동안 일하고 하루를 거룩히 지키며 쉬라는 교훈과 어긋납니다. 그러므로 주님 부활하신 주일을 쉬면서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바리새적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중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신약시대의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주의 날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일은 신약시대에 예수님 부활하신 가장 귀한 날입니다. 초대교회가 새롭게 힘을 얻은 새출발의 날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참고 출 20:8~11) *



절기 설교집

김창인목사 저작 전집
설교집 제3권
충현교회 출판부

각 나라마다 명절이 있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도 명절이 있다.

나라의 명절을 국민이 그 명절의 뜻을 바로 알아 정성껏 지키면 그 나라가 잘 되듯이 성도들이 교회명절의 뜻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고 온 교회에 는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구약교회에서는 3대 절기 즉 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을 지키었고 신약교회에 와서는 4대 절기로 성탄절,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을 지키어 왔다.

이외에 오늘날의 교회나 한국교회에 있어서는 개 교회와 당회장의 목회방침에 따라서 4대 절기를 중심으로 3·1절기주일,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광복기념주일, 성서주일등 일반주일과는 달리 주일을 지키는 경우가 있다.

교회의 모든 절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깊은 의미들이 있으므로 절기를 바로 지키는 것이 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교회의 명절을 지킴에 있어서 그저 돌아오는 연례행사식으로 지킨다면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주신 길은 뜻을 마음에 새기고 정성을 다해 지킬때 하

나님께 영광은 물론이요 온 교회와 개인 자신에게 큰 복이 임하게 된다.

본서는 보수 신학에 근거하여 역사적, 성경적인 기본 바탕 위에 쓰여진 감화력 있는 설교집이다.

하나님중심과 성경중심, 그리고 교회중심의 신학사상에 의하여 쓰여진 이 책은 읽는 자로 하여금 절기의 뜻이 무엇이며 절기를 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김창인목사의 저서중 어느 한권을 읽어본 자들은 또 다시 그의 저서들을 읽으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저서들이 확고한 하나님중심사상에 의하여 쓰여졌으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평신도의 사역이 날로 요구되고 있는 현 교회의 실정에 미루어 볼때 설교집이 더이상 교역자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며 교회 직분자와 일반 성도들도 함께 읽어야 할 것이다.

바라기는 본서를 읽으므로 교회 절기의 뜻을 바로 이해하고 정성을 다해 지키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개인자신은 큰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면서 본서를 추천하고자 한다.

월간충현 편집부

선교지 소식

공동 기도제목

1.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영육이 강건하며, 자녀 교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2. 선교교회의 안정과 부흥발전 및 선교사역에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3. 현지인의 복음화와 개척교회의 설립 및 현지인 사역자의 훈련과 육성을 위해...

인도네시아(서만수 선교사)

● 지난 한해동안 회교 세력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오지 개척교회가 49개로 늘어나고 장년 426명, 어린이 61명이 결신하여 교세가 3,658명이 됨.

● 서만수 선교사가 6월4일 일시 귀국함. 약 2개월간 대리근무차 윤태곤 목사가 5월15일 출발, 23일 현지 도착하여 정영옥 사모와 함께 목회 및 선교 사역에 수고하고 있음. 7월말 귀국예정.

● 84년 개원한 할렐루야 선교원과 85년 9월 개원한 기독교대학(343명)을 통하여 활발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음.

● 서부 뉴유기니아섬(이리얀자야)에서 선교 활동을 담당할 선교사 2명의 동역자가 필요함.

일본(유병세 선교사)

● 금년 4월 3일로 파송 10주

년을 맞이하여 감회와 소감을 보내 오시고 금년에도 임기가 1년 연장됨.

● 교포 의사가족들과 전도와 교제, 사모 이운호권사의 부인 성경반이 방학을 마치고 다시 시작.

● 히로오 교회 및 호로이즈 교회서 설교 및 기도 담당. 병원 전도 및 노방전도 수시 실시.

인도(엘리아겔간 선교사)

● 정기 편지 형식으로 잠부-카시밀에서 영적 갈급함을 겪고 있는 영혼들과 개종하면 사회적으로 배척받아 쫓겨 다니는 불쌍한 개종자들을 위해 특별 기도를 부탁해 옴.

● 3월 18일 티벳 기독교 연합회 이사회에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심.

● 2월 중에는 약 20일간 처음으로 온 가족이 휴가를 얻어 여행함.

● 충현 세계 선교회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힘입어 열병과 설사를 이기고 살아난 안드레아스군에 관하여 감사의 말씀과 함께 사진을 보내옴.

애굽(이준교 선교사)

● 작년 12월 3일 이원경 외무부 장관 표창 받으신 일과 함께 선교 제 7주년을 맞이하여 선교 기반이 어느정도 다져졌으므로 선교관 및 교회 건축을 계획할 때임을 다짐하고 전화번호가 바뀐 소식(3504620 으)을 보내주심.

● 금년에는 현지인을 통해 복음전파를 강화하고 개척교회를 세우며 지교회 부흥을 위해 전력하고 복음주의 신학교와 신학생 장학금 지원 및 강의의 위한 준비의 해로 정함.

● 3월 25일 카이로, 알렉산드리아, 소하그, 마니아 등지에서 보안 경찰들의 대규모 폭동으로 수백명의 인명과 차량피

해가 있었으나 선교사 가족과 한인교회를 지켜 주심을 감사하고 특별기도 부탁드립니다.

●한인교회 목회, 포트사이드 가정교회 인도, 동산토건 웨라톤 현장예배 및 현지인 개척교회 방문과 협력선교 교회들을 방문하고 지원금 전달 및 업무 협의.

이스라엘 (김주경 선교사)

- 작년말로 한인교회 담임을 마치고 협동 목사로 동역중.
- 성지 연구소 관계로 6월말 일시 귀국 예정임과 차량 구입 기금이 모여 본부 및 미국 방문후 구입예정.
- 성지 연구소 운영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한 관계자를 이스라엘 정부 및 관광성, 엘알 항공사, 한국 항공사들과 접촉하고 현지 선교 기관 및 연구소들과 업무 협의중임.

서독(육호기 선교사)

- 하나우 교회 금요 성경 공부를, 육호기 선교사가 어학과정에 들어가 있으므로 사모가 감당하는데 버스 8번, 기차 4번을 갈아타는 불편함 속에서도 지켜주심을 감사함.
- 뮌헨부룩 교회 여전도회 설립, 성례식 거행, 구역별 기도회 인도.
- 자동차가 너무 낡아 수리비가 많이 들어 새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기도하고 있음.

서독(김성주 목사)

- 비스바덴 교회 목회 담당. 마인쯔 대학 어학과정 이수 중.
- 금년도 목회 방향을 영적인 성장에 두고 수요 기도회를 시작.
- 독일 선교의 필요성 인식하

며 동시에 선교열도 높아져 월 200마르크씩 애굽 개척교회를 돕기 시작하였으며 선교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요청함.

벨기에 (김성완 선교사)

- 브라셀 한인 선교교회를 기반으로 안트워프 선원선교 교회를 설립하고 1월25일 로텔담에 선원선교 교회를 설립하여 협력 선교의 길이 열림을 감사하며 기도 부탁.
- 새로운 장소로 교회 이전함. 본당 220석, 영아실등이 갖춰진 벨기에인 선교 교회이다. (주소: 11 Rue Ernest Allard 1000 Bruxelles Belgium)

파라과이 (김재창 선교사)

- 12월 22일 교회 설립 10주년을 맞아 10분의 장로를 임직하고 예배 상황을 비데오로 녹화하여 보내오심.
- 작년도에 지원하던 개척선교교회 12개소를 대부분 자립시키고 금년에 새로 6개소를 현지 장로교 총회와 협의하여 결정함. 협력선교하는 상계교회(하대성 목사 시무)는 범죄자들에게 전도하는 빅토리아누스 목사를 지원키로 결정하고 매월 50불씩 지원.
- 교회 증축공사를 하면서 나오는 자재로 원주민 장로교회(양천근 전도사 시무) 건축을 시작함.
- 기도원점 수양관 대지를 물색중이며 막내 따님 성미양 약혼 소식 보내옴.

칠레 (유재일 선교사)

- 금년 1월 5일 성전공사 대금 지불을 완료하고 헌당예배를 드리고 사진과 함께 기쁨의 보고 보내옴.

●성전 건축으로 수고한 선교사님께서 성도들의 배려로 한 달간 모교회와 본부를 방문하고 친지와 성도의 문안 및 교제를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17일까지 체류하심.

- 선교정책 수립 및 선교 후보자 물색 등 다음 단계 선교를 위해 본부와 제반 업무를 협의하고 2월 12일 칠레 시민권을 신청하여 4월 28일 받으심.
- 3월 4일 원주민 산티아고 중앙교회 설립 1주년 기념예배 드림. 6월22일에는 개척교회 지원 및 고아원 후원 전도외에 한인 성도 인조가족 공장에 교회 설립 예정. 전담 사역자 필요성 긴박해짐.

텔사(강성진 목사)

- 연초부터 계속 성탄 선물, 성화달력, 각종 도서 및 찬송가, 목사 가운 및 성가대 가운을 받고 감사의 문안과 함께 선교소식을 보내옴.
- 새로이 청년회를 조직하고 4월 5일에는 천선 운동경기를 가졌으며 전도와 2세 교육을 위해 한글학교를 설치 운영하며 한글 장서를 갖춘 도서관 설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이를 위해 9월 및 11월 2회에 걸쳐 바자회를 가질 계획임.
- 성도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로 80명 모이던 교회가 40명 밖에 안되어 특별기도를 요청해오심.
- 알칸사주 스프링 델리지역 전도여행시 일행 차량 1대가 사고를 당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뉴욕(박종만 목사)

- 미국 개척교회 한인교회 연

함 직분자 수련회에 참석하여 함께 은혜 나누고 성도들이 세 단차 1대를 사드리는 등 은혜로운 가운데 목회에 전념하고 계심.

● 12월 29일에는 남진도회를 조직함.

● 뉴욕 성도들이 북한 선교와 새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가운데 귀한 헌금들을 보내옴.

● 자당 김완수 전도사는 충현 기도원에서 어머니같이 기도와 심방과 영적인 상담을 해주고 계심.

홍콩(오치용 목사)

●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되는 가운데 주일학교는 2대의 버스를 운행중이며 남여전도회를 구성하고 토요일에는 한글교육을 실시하는 어린이반을 운영하고 2월부터는 주간 영어학교를 운영함.

● 홍콩의 새 한국인 교회 담임 목사 및 이만렬목사 등이 모여 주 홍콩 한국선교 협의회를 구성하는 가운데 총무직에 취임하심.

● 선교의 본격적인 추진이 될 「만민의 기도 센터」 운영을 위해 5월 3일 제 2회 선교 바자회를 성공적으로 가짐. 특히 본부에서 회장 한경일장로, 공산권 담당 김종구장로, 회계 남선우장로가 모교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심으로 귀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우의를 돈독히함. 5월 4일 설립 2주년 기념예배에도 참석하여 바자회 수익금 일부를 한국학원 시정 각 교재 기금으로 기탁.

● 설립 2주년 기념 부흥집회(5월 20~23일)에는 모교회 조영길목사가 인도하여 크게 은혜받는 집회가 됨.



〈본부 소식〉

1. 선교 협력교회 소식

● 부산 장전교회가 인도네시아 서만수 선교사와 협력하여 단독 선교사 파송 소식 전달.

● 부산 수영로교회 선교회장 및 담당 교역자가 본회 방문하여 선교 협력의논과 자문.

● 인도네시아 오지교회 지원에 이어 파라과이 개척교회 지원을 결정한 상계교회(하대성 목사시부)를 5월 18일 방문하여 선교 협력패 전달하고 교제나눔.

● 광천교회(장정일목사 시무)가 홍콩 충현교회 선교 사업을 위해 매월 300불씩 지원 결정 알려 옴으로 5월 4일 감사패 전달하고 교제나눔.

2. 5월 2일 홍콩 충현교회 설립 2주년 및 제 2회 선교 바자회에 본회 김종구, 남선우 장로가 참석하고 인도네시아 선교지 순방도 아울러 마치고 돌

아옴.

3. 5월 20일 철레 유재일 선교사 입국

● 본교회 대예배 설교와 저녁 설교시 선교보고(비디오 상영)

● 선교 협력교회, 북한 선교원 등 방문하고 성도의 교제.

● 6월 17일 철레로 출국

4. 6월 4일 인도네시아 서만수 선교사 입국.

● 선교협력교회 설교 및 한인교회 성도 등과 교제.

● 본교회 대예배 설교 및 저녁 예배시 선교보고.

● 6월 11일 여행 및 선교 협의차 미국 방문하고 7월 초순경 재입국 예정.

5. 각 선교지에 보낼 도서를 수집한 결과 700여권이 모였고 엠마오 서적 김기정 장로가 책을 기증하여 각 선교지로 분배하여 6월 20일 발송.



교회소식

■ 부흥사경회

성전건축을 위한 부흥사경회가 이상근목사(대구 제일교회 당회장)를 강사로 모시고 지난 4월 28일(월)부터 5월 2일(금)까지 본교회당에서 있었다.

새벽기도회를 비롯하여 낮성경공부, 저녁부흥회로 진행되었던 동 부흥회는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는 성황중에 끝났다.

■ 당회장 김창인목사 대한 성서공회 이사장으로 추대

지난 5월 20일(화) 오전 10시 대한성서공회 회관에서 열린 제65회 대한성서공회 정기총회에서 당회장 김창인목사가 신임 이사장으로 추대되었다.

■ 당회장 김창인목사 통일기원 민요대잔치에서 설교

지난 5월 3일(토)에 기독교 방송과 여의도 청년회의소가 주최한 통일기원 민요대잔치가 국

립극장 야외무대에서 있었다.

1부 통일기원 특별예배와 2부 민요대잔치로 진행된 이날 1부순서에서 당회장 김창인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 대전·동두천 연합부흥성회

'88세계복음화 대성회 준비를 위한 지역별 연합부흥성회가 대전 및 동두천에서 각각 있었다.

한편 당회장 김창인목사('88세계복음화 대성회 총재)는 5월 19일(월)부터 5월 21일(수)까지 저녁집회만 가진 대전 부흥성회에서는 연일 강사로 수고했고,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열린 동두천 연합부흥성회에서는 마지막날(22일)저녁에「우리는」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 강명순 안수집사 5·16민족상 산업부문상 받아

우리교회 강명순(康明順) 안수집사가 지난 달 제21회 5·16민족상 시상식에서 영예의 산업부분 본상을 받았다. 이번에 수상하게 된 주요공적은 강 집사가 33년간을 기계공학분야 교수로서 후진양성에 주력하면서 연구와 저술에 기여하는 한편, 산학(産學)협동에 의한 진흥에 앞장서 기능공 양성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 6연패 달성에 크게 공헌함으로써 기능한국의 국제적 지위향상과 산업기반 조성에 이바지한 바가 크기 때문이라고 전해졌다.

현재 한양대학교 부총장인 공학박사 강집사는 대한민국 학술원 정회원이며 상공부공업진흥청 공업표준 심의위원이기도 하다. 그는 유년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해오고, 평남 평양시가 고향인 강 집사는 지난해 9월 남북이산가족 방문시에는 평양을 찾아 철춘 조카를 만나기도 했다. 양정옥 권사와의 사이에 3남2녀가 있다.

■ 각부 회계감사

감사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8·25일(주일)에 선교관 201호에서 각지회의 회계, 주일학교 각부회계, 각 찬양대 회계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

■ 교구별 전도

4월 총동원 전도의 달을 맞이하여 교구별 총동원 전도가 지난 4월 25일(금) 교구별로 실시되었다.

■ 제2차 구역일군 교육

제2차 구역일군 교육이 지난 5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본당 대에 배실에서 650여명의 구역일군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1부는 김창인목사의 설교, 2부는 조영길목사의 「구역 일군과 신앙무장」, 정복인진도사의 「하나님의 선물과 사랑의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교육이 실시되었다.

■ 구역권찰회 상임간사 사임

그동안 구역권찰회 상임간사로 수고하던 이대길집사가 개인사정으로 상임간사직을 사임했다. 한편 구역권찰회 직원으로 김경숙선생이 임명되었다.

■ 모범 교구간사 표창

지난 6월 1일(주) 구역권찰회 시 모범 교구간사 김세홍집사의 표창이 있었다. 김세홍집사는 교구확장과 교구관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어 이번에 표창을 받게 되었다.

■ 수도노회 주일학교연합회 주최 성경퀴즈대회

지난 5월 3일(토) 오후 2시에 동원교회당에서 수도노회 주일학교연합회 주최 제15회 성경퀴즈대회가 있었다.

본교회에서는 유년·초등·소년·중등·고등부에서 각부 6명씩 모두 30명이 참석해서 종합 2등을 차지하여 교회를 빛냈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1등 초등부: 김성우, 이나흠
- 2등 초등부: 김은혜, 손에스더
- 고등부: 김성욱, 이영준
- 3등 초등부: 손신애, 양현수
- 나갑제
- 소년부: 강대영
- 고등부: 이재웅, 황태진

■ 청년부 특강

청년부에서는 지난 4월 27일(주) 오후 1시 30분에 교육관



414호실에서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라는 주제로 양은순집사의 특강을 가져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 새가정부 특강

새가정부에서는 지난 4월 20일(주)에 「가족 건강관리」라는 주제로 이종석집사의 특강이 있었고, 5월 25일(주)에는 「성경적인 고부관계」라는 주제로 이경애교수의 특강이 있었다. 특히 25일의 특강에는 장년1부의 어머니들도 함께 참석하여 성경적 고부관계에 많은 관심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 대학생 초청전도집회

대학부에서는 지난 5월 10일(토) 오후 5시에 대학부 집회실에서 제3회 대학생 초청전도집회를 가졌다.

이번 전도집회에서는 「와보다 더 큰일을 보리라」라는 주제로 윤용규목사, 조기철간사가 강사로 수고했다.

■ 유치·유년부 학부모 초청음악회

지난 5월 11일(주) 오후 2시에 유치부실과 유년부실에서는 각각 유치부, 유년부 학부모 초청음악회가 있었다.

많은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단위로 진행된 이번 음악회에서는 찬송 및 기악 순서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고등·장년 2부 특강

고등부에서는 지난 5월 11일(주)에 「창조과학」이란 제목으로 김종배박사(건국대 교수)의 특강이 있었고, 장년2부에서는 5월 18일(주)에 「크리스찬 부부의 신앙성장」이란 주제로 이귀자교수(이화여대 교수)의 특강이 있었다.

■ 양로원 방문

소망부에서는 지난 5월 24일(토)에 경기도 고양군 벽제에 위치한 새마을 양로원을 방문하여 외로운 노인들을 위로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했다.

■ 의료 상담실 개설

전도위원회 산하 의료전도단에서는 교우들의 건강을 위한 의료상담을 개설하고 매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선교관 403호에서 실시하고 있다.

■ 새교우 환영예배

전도위원회에서는 4월 총동원 전도의 달을 맞아 지난 5월 4일 주일저녁예배를 새교우 환영예배로 드렸다.

간식도 겸한 2부 순서는 3·4월에 등록한 새교우들을 대상으로 저녁예배후 새신자부실에서 당회장 김창인목사의 설교, 이두란 전도사의 기도에 이어 구명신전도사의 새신자부 소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한편 전교역자, 장로의 인사소개의 순서로 서로간에 격을 줄이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 전북지역 복음화 대성회

지난 4월 28일(월)부터 5월 2일(금)까지 전주에서 북한선교원 주최로 전북지역 복음화 대성회가 있었다.

이번 성회에서 목회자 세미나 시간에 「목회자의 자세」란 제목의 당회장 김창인 목사의 강의를 있었고, 4월 30일 저녁집회에서는 당회장 김창인목사가 「우리는」(벧후 3:8-13)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 노인 위안 초청전도집회

북한선교원에서는 지난 5월 8일(목) 어버이 날을 맞아 시내산에서 서울·경기 지역 할아버지 할머니 700여명을 모시고 전도집회 및 위로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당회장 김창인목사의 설교와 유공자 표창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2부 행사로는 찬양 및 장기자랑의 순서가 있었다.

또한 각종 무료진료 및 처방도 있었다.



■ 제 5차 목회내조자 경건훈련

지난 5월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 시내산 훈련원에서는 북한선교원 주최로 목회 내조자 경건훈련이 있었다.

초교과적으로 850여명의 교역자 사모가 모인 가운데 첫날 저녁 부흥집회에서 김창인목사는 「성령충만 받으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 제 5차 목회자 경건훈련

북한선교원에서 주최한 제 5차 목회자 경건훈련이 지난 6월 2일(월)부터 6일(금)까지 북한선교 훈련원에서 900여명의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이번 훈련의 강사로는 당회장 김창인목사, 최동진목사, 박조준목사, 석원태목사, 유인식목사, 유홍종목사, 정성구목사, 조준상목사가 수고했다.

■ 종탑철골 설치

건축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0일 종탑공사중 난공사의 하

나인 종탑철골 설치작업(무거운 철골을 100톤 기중기를 동원하여 30m 높이로 올려서 설치하는 작업)을 무사히 마쳤다.

6월 20일 현재 전체 종탑공사의 60%가 진행되었으며, 종탑공사 완공은 큰종탑이 7월 10일경, 작은 종탑이 8월 20일경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번 종탑철골 공사로 멀리서도 교회를 볼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공사의 진행을 피부로 느끼게 되어 전교인이 감사함으로 지켜보게 되었다.

한편 성진건축 제 3차공사는 전체 공정의 2.4%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 김창인목사 설교집 발행

출판국에서는 지난 5월 25일에 당회장 김창인목사 저작전집 제 3권 「절기 설교집」을 발행하였다. 또한 제 1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는 4판을 6월 10일에 발행하였다.

교

우

동

정

새 교 우

판교구역	박애순	역삼구역	김유진	역삼구역	유양숙	도곡구역	김정순	논현구역	김선갑
개포한신	정복자	현대구역	박준경	불천구역	박길배	군포구역	이효진	화곡구역	전경숙
인천구역	최숙영	중계구역	최종복	신당구역	김옥순	목동구역	박종란	방이구역	박정애
행당구역	조은영	회현구역	이인호	역삼구역	정순정	신흥구역	이영희	서초구역	손효순
논현구역	이진봉	개포우성	김홍순	논현구역	김철수	불천구역	이정옥	반포구역	오순도
부천구역	신대식	신정구역	조복집	수송구역	박상순	길음구역	이종숙	답십리구역	서치옥
신천구역	원형준	하월구역	왕윤식	송정구역	이강은	역삼구역	김영석	역삼구역	강원주
역삼구역	오 학	논현구역	김평순	대치구역	안금순	개포시영	이은숙	반포구역	유동주
개포주공	김월매	당산구역	이철희	송인구역	조미숙	성산구역	백철호	창신구역	김복례
종로구역	염순덕	북아현구역	전병원	창신구역	이광국	하월곡구역	이강자	길음구역	윤영신
수유구역	조현국	하월곡구역	김상식	정릉구역	김연정	상계구역	이미숙	신당구역	조명희
용두구역	김성신	상봉구역	이광연	신당구역	이분옥	남양주구역	고화순	잠실주공	김해경
성내구역	정년자	여주구역	정창용	잠실우성	권기설	길동구역	박진민	천호구역	정광수
신천구역	정자영	석촌구역	박종숙	금호구역	박용현	하월곡구역	장정화	목수구역	노성근
중곡구역	홍금숙	신당구역	신현직	대치구역	이한용	삼성구역	김현경	사근구역	조양운
상봉구역	이복자	성수구역	송영자	역삼구역	이화신	청담구역	엄종태	한남구역	김영란
면목구역	김옥남	구의구역	김종훈	상계구역	송영순	한남구역	이동분	신당구역	나윤전
개봉구역	표종균	가락구역	김영효	광희구역	이정석	성남구역	김우순	성남구역	조연남
대치구역	조성훈	신월구역	김혜숙	역삼구역	서태순	역삼구역	이정화	신당구역	문신례
잠실구역	김은희	녹번구역	이동주	중림구역	허영자	장미구역	김창우	종로구역	한 석
전동구역	이창희	한남구역	이지연	불광구역	김혜자	5교구역	박명우	전동구역	노민희
부천구역	이현옥	반포구역	강동선	면목6구역	김명심	신설구역	이성진	가락구역	이현인
신길구역	남순자	방배구역	박상술	월계구역	문석래	화곡구역	양희숙	역삼구역	정광순
성남구역	차숙자	이문구역	이광우	대치구역	김미진	신당구역	김연희	역삼구역	김종석
자양구역	김충근	개포구역	윤효철	능동구역	이영숙	사당구역	정경혜	돈암구역	이재순
창신구역	공수진	역삼구역	안태운	역삼구역	김영숙	역삼구역	하호순	대성구역	이해주
역삼구역	조윤교	역삼구역	배미숙	역삼구역	윤옥희	논현구역	김정아	대치구역	이직순
파천주공	최종옥	신림구역	배진호	내발산구역	김순년	신사구역	최남규	신사구역	남경순
홍제구역	정유식	신영구역	전영철	영천구역	홍금철	영천구역	김연순	하월곡구역	고광호
돈암구역	김향옥	길음구역	이현주	상계구역	최연옥	제기구역	송기상	청량구역	김민호
성봉구역	김옥환	옥수구역	최형숙	초동구역	김학천	역삼구역	정원춘	역삼구역	박성덕
역삼구역	김순희	역삼구역	이명자	공무원구역	김진영	공무원구역	나영예	공무원구역	나민숙
공무원구역	나미경	동남아구역	강난희	동남아구역	김승주	동남아구역	윤정선	개포한신	김달현
개포한신	김영혜	청담구역	박현정	신사구역	김기화	용인구역	전경옥	방배구역	정영애
신월구역	장옥순	광명구역	주송영	아현구역	심해경	동소문구역	권선옥	하월곡구역	강미경
성내구역	김종만	임사구역	정순덕	홍익구역	이정훈	마장구역	권순단	금호구역	서경임
자양구역	박옥화	한남구역	김현희	광희구역	박지연	신당구역	강석자	신월구역	표복심
행당구역	정규덕	역삼구역	박해정	양재구역	박미녀	방배구역	조순환	신당구역	신미숙
방이구역	오순일	자양구역	권희진	제기구역	이미녀	공릉구역	이영근	신당구역	엄술례
잠실구역	황혜신	청담구역	여종춘	역삼구역	손영희	신원구역	김용숙	을지7구역	한정남
역삼구역	유연숙	신사구역	박종렬	역삼구역	박신희	역삼구역	강순금	역삼구역	전미향
역삼구역	백영순	논현구역	유옥주	삼성구역	고남숙	신월구역	김양득	충신구역	임영숙
창신구역	조연화	창신구역	민문자	불광구역	박효신	면목구역	김나대	구의구역	정구순
금호구역	유명숙	금호구역	김경숙	충무구역	이유복	신길구역	김경숙		

결 혼

▲최동욱군(창신구역 김옥련씨 아들)과 김미란양 4월 22일 12시 30분.

▲이학희군과 김광옥양(김성주씨 딸) 4월 22일 오후 1시.

▲허진군과 김은경양(논현구역 제3천양대원) 4월 22일 오후 2시.

▲강호원군(역삼구역 강일중씨 남정우권사 아들)과 이미경양 4월 24일 12시.

▲이종대군(월곡구역) 4월 25일 12시.

▲김광은군(고덕구역 김용석집사 한정심집사 아들)과 박희숙양 4월 26일 12시 30분.

▲이윤복군(신설구역 백봉희권사 아들 제1천양대원)과 박영진양 4월 26일 오후 2시.

▲김용훈군과 조현숙양(장위구역 제1천양대원) 4월 26일 오후 4시.

▲장태욱군(장애희권사 손자)과 조한숙양 5월 3일 12시.

▲김익준군과 김은실양(목동구역 김남조집사 김일순집사 딸) 5월 3일 오후 2시.

▲장욱군(과천구역 이예강권사 아들)과 김성숙양 5월 3일 오후 3시.

▲김대경군(구의구역)과 김천순양(김상득 임금례집사 딸) 5월 5일 오후 1시.

▲윤충균군(홍은2구역 조예숙씨 아들)과 이영숙양 5월 5일 오후 1시.

▲조성수군(조창익씨 김정암권사 아들)과 정미숙양(김복희권사 딸) 5월 5일 오후 2시.

▲유재욱군과 정영희양(주교교사 정한봉씨 이삼세집사 딸) 5월 8일 12시 30분.

▲제용택군과 윤석연양(삼성구역) 5월 8일 오후 2시.

▲최광주군(최동규집사 김은애권사 아들)과 이은순양 5월 10일 오후 2시.

▲송명섭군(주교교사)과 이원희양 5월 12일 오후 3시.

▲김인기군(지숙원권사 아들)과 박종란양(박문규씨 딸) 5월 13일 12시.

▲이갑수군(이종성집사 김길득권사 아들)과 김세진양 5월 17일 오후 2시.

▲구상희군(조기형권사 아들)과 황경원양 5월 21일 오후 2시.

▲안기성군(임정자집사 아들)과 김경미양 5월 23일 오후 1시.

▲김영환군과 이희승양 (이영휘씨 김남식권찰 딸) 5월 24일 12시.

▲송병국군(송영찬씨 최선옥집사 아들)과 위지현양 5월 24일 12시

▲김세일군(김인숙집사 아들)과 이창정양 5월 24일 12시 30분.

▲차재승군(제1천양대원 차영배목사 아들)과 김영미양 5월 24일 오후 1시

▲김성현군(제3천양대원 김노태집사 아들)과 이복자양 5월 24일 오후 2시

▲김광전군(김은수 문옥순집사 아들)과 나여경양 5월 31일 오후 1시

▲김원일군(김예권집사 아들)과 박은희양 5월 31일 오후 2시

▲최문수군과 강경신양(강용제집사 김병숙권사 딸) 5월 31일 오후 2시

▲이승현군(신금녀권사 아들)과 박한라양 5월 31일 오후 3시

▲김재준과 김정원양 (김동열씨 최정자집사 아들) 6월 5일 12시

▲임장수군(임영준씨 유남순

권찰 아들)과 임한나양 6월 7일 12시 30분

▲진승근군(최경애권사 아들)과 이혜선양 6월 7일 오후 2시

▲김원남목사(본교회 부목사)와 정기순전도사 6월 9일 오후 2시

별 세

▲김탄실씨(김예권집사 김옥래권사 모친 김원선장로 장모) 4월 16일 별세.

▲윤순임씨(면목6구역) 4월 14일 별세.

▲김천를집사(한남구역) 4월 23일 별세.

▲서영희권사(성남구역) 4월 30일 별세.

▲허백 씨(을지구역 주교 교사 허운성선생 부친) 5월 1일 별세.

▲홍중섭장로(김진만 권사 부군) 5월 7일 별세.

▲김대복권사(김광철장로 모친) 5월 4일 별세.

▲김형준성도(이세영성도 부친) 5월 5일 별세.

▲김운현성도(쌍문구역 허옥남권찰 부군 5월 20일 별세.

▲박성일 성도(자양5구역 직전 부 박미숙씨 부친) 5월 21일 별세.

▲정운수장로(정하우장로 부친) 5월 25일 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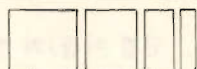
▲이명희성도(안산구역) 5월 27일 별세

▲문태용씨(허용순집사 부군) 5월 29일 별세

▲김상린 성도(청담구역 윤상언씨 조모) 6월 2일 별세

▲한승애권찰(창신5구역) 6월 3일 별세

▲지동방장로(미국거주) 6월 6일 별세



5·6월의 행사



□ 당 회

5월 30/5월 정기당회

□ 제직회

5월 4일/5월 정기제직회

6월 1일 6월 정기제직회

□ 구역권찰회

5월 30일/제2차 구역일군 교육

6월 27일/제2차 교구별 전도

□ 예배위원회

6월 22일/성례식

□ 교육위원회

5월 10일/대학부 초청전도집회

5월 11일/유치·유년부 학부모
초청음악회, 고등부 특강

5월 16일/초등·소년·중등·고
등·대학·청년부 교사 야외예배

5월 18일/장년 2·새가정부특강

5월 24일/소망부·양로원 방문

6월 6일/새가정부 가정수련회

6월 15일/장년 1부 학생특강

6월 28일/중등부 작은 음악회

6월 29일/유년부 2학기 학습평
가, 고등부 총동원 전도, 청년부
학생특강

□ 전도위원회

5월 4일/새교우환영예배

□ 북한선교위원회

5월 5일/어린이 초청대찬치

5월 8일/노인 위안 초청전도집
회

5월 19~23일/제5차 목회내조
자 경건훈련

6월 2~6일/제5차 목회자 경건
훈련

□ 감사위원회

5월 18·25일/각부 회계감사

□ 출판국

5월 25일/「절기 설교집」 발행

6월 10일/「나의 힘이 되신 여호
와여」4판 발행

편 집 후 기

○...계절의 여왕 혹은 가정의 달로 불려지는 5월이면 많은 행사가 있기 마련이다. 그 중에서도 어린이날, 어버이날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러나 좋은 행사 때마다 각종 놀이터, 유원지, 혹은 고궁에서 버림받은 어린아이들, 노인들이 많이 나와 우리를 슬프게 한다. 미야 발생율이 1년중 최고라고 한다. 사랑의 기본집단인 가정에서 그것도 놀이를 빙자해 한껏 마음을 부풀게 해 놓고서 버리고 가다니.

사랑의 메마름을 피부로 느껴보며 다시 한 번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영원한 사랑임을 되새겨 본다.

○...이번 여름에도 각 부서에서 여름철 각종 행사들을 준비해 놓고 있다. 안내벽보나 현수막만 큼이나 큰 결실이 있기를.

○...6·25를 맞아 조현명장로의 「6·25 회상」이란 글을 실었다. 직접 체험을 통해, 글을 통해 또는 T·V 화면이나 사진을 통해 전쟁의 비참함, 북한공산집단의 극악무도함을 되새기게 된다.

지금도 북녘땅에서 자유를 그리며 신음하고 있는 내 동포를 생각하며 하루 빨리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두손 모아 기도해 본다.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 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월간 충현

1986년 5·6월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86년	7월	2일	인쇄
1986년	7월	5일	발행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조현명		
주간	이성근		
편집장	김차생		
편집위원	김원남		
	조영길		
	김장근		
	이응선		
	조선근		
	손경수		

발행처/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62-4181~5

사진으로 보는 충현의 이모저모



▲ 교회 부흥사경회(4월 28일-5월 2일)



▲ 새신자 환영예배(새신자들과 일일이 악수하시는 당회장 김창인목사)



▲ 전북지역 복음화 연합집회(설교하시는 당회장 김창인목사)



▲ '86년 제 3차 성찬식(6월 22일 주일)



▲ 어버이 주일(리본을 달아 드리는 모습)



▲ 칠레 선교보고(유재일 선교사 81년 1월 21일 파송)

〈기 도 문〉

나에게 이러한 자녀를 주시옵소서 —
오주여!

약할때에 자기를 분별할 수 있는 강한 힘과
무서울 때에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담대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 하지 않고
태연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생각하게 할때에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그런 자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데 그를 쉬움과 안락의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대하여 항거할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
남을 정복하려 하기전에 먼저 자신을 정복하는 자녀
장래를 바라보는 동시에 과거를 잊지 않는
자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을 다 주신 다음 이에 대하여 유우머를
알게 하시며 인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삶을 즐길줄 알게 하시며
자기 자신을 너무 중대하게 여기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참으로 위대한 것은 소박하다는 것과
참된 지혜는 개방된 것이요
참된 힘은 온유한 것임을
명심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